



❶ V리그 무관중 경기 확정 ❷ K리그 대구FC·포항전 연기 ❸ 남자농구 태국전 무관중

한국스포츠 ‘코로나19’에 섰다운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섰다운(Shut Down)이 현실화되고 있다. 각 스포츠 단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회 취소, 무관중 경기 진행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열화상 카메라를 급히 구매하고 손 소독제 및 마스크 제공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21일부터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자 운영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각 스포츠종목의 대응 수준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 국내에서 모처럼 열린 A매치지만 관중석은 텅 비었다. 23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A조 한국-태국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관중 경기로 펼쳐졌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경마·경륜·경정 모든 일정 임시중단
중계계약 없는 핸드볼 전 경기 취소
‘부산 세계탁구’ 조 추첨식도 미뤄져
3월 28일 개막 KBO리그도 준비상

●프로배구 무관중 경기 확정

남녀프로배구 V리그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오후 늦은 시각, 잔여 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당초 24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인천광역시와 경북 김천시, 경기도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21일 V리그 연구단에 리그중단 혹은 무관중 경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천시는 동시에 도로공사의 홈 경기장이 있는 스포츠타운 전체를 임시 폐쇄했다.

V리그는 현재 시즌이 정점으로 25일부터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섰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GS칼텍스-현대건설전을 보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손 소독을 하며 입장하고 있는 관중들. 주원희 기자 teth1147@donga.com

18일까지 마지막 6라운드 65경기가 남아있다. 방송 중계권 계약 및 스폰서 광고 등으로 당장 리그 중단

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자 재빠르게 대응했다.

중계권 계약에서 자유로운 핸드볼은 남은 리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3일, 4월까지 남아있던 SK핸드볼코리아리그 경기를 모두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리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정 축소,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 취소, 무관중 경기 등으로 대응 단계를 높여왔었다.

●K리그1 개막전 일부 연기·농구 A매치도 무관중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K리그1 2020 개막전 중 29일 대구FC, 3월 1일 포항 스틸러스의 홈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경기는 일정대로 치르기로 했지만 24일 연맹 내 사무국에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고, 상황에 따라 긴급이사회 개최도 고려하기로 했다.

여자프로농구(WKBL)는 무기한 무관중 경기를 이미 시작했고 남자프로농구(KBL)는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처럼 국내에서 열린 남자농구 대표팀 A매치도 관중 없이 열렸다. 23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A조 태국전은 관중들에게 객석을 개방하지 않았다. 올해 첫 국내 A매치로 많은 표가 예매됐지만 무관중이 결정됐다. 취재진 및 진행요원들도 경기 전 발열 검사 및 감기 증상, 최근 중국 방문 여부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22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 추첨식도 하루 전날인 21일 연기됐다. 이번 대회는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며 83개국 선수들이 참가한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김광현 첫 등판 10이닝 무실점…윌트 감독 “슬라이더에 반했어” ▶ 2면

방탄소년단 역대급 돌풍…빌보드 200 ‘4번째 1위’ 시간문제 ▶ 11면

내일의 솔루션은 기술에 있습니다.

77억명 모두 고갈 걱정없는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에
인체에도 환경에도 무해한 친환경 화학 기술을 더하고
미래 첨단소재의 기술까지 더한다면
내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더많은 솔루션들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가
기술로 시대의 문제를 풀어낼 한화솔루션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